

**공간과 공간경험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Space Experience

오창섭* / Oh, Chang-Sup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body material and non-material factors forming space and to explain our experience in space. Space is formed by material factors and their disposition. One space becomes a new space by such factors' arrangement. Nevertheless, one space is never swayed by material factors and their disposition. Space is a reflection of social relations and historical process, and is also affected by its users. Space can not neutrally exist, for it compels its users to keep a specific life style. Space users have experience in space by practice. Practice enables its users to experience various relationships space makes, and as well it allows them to have creative experience in space by twisting them and inducing a new relationship.

키워드 : 공간, 공간경험, 권력, 실천, 배치

1. 서론

1.1.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일상에서 공간을 구성하고 특징짓는 물질적, 비물질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공간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내용

첫째, 공간에 대한 근대적 이해방식과 일상적 공간경험의 내용을 고찰한다.

둘째, 공간을 구성하고 특징짓는 물질적 요소들과 그 특성을 이해한다.

셋째, 우리의 공간적 경험을 구성하는 비물질적 요인들과 그것들의 작용방식을 이해한다.

넷째, 일상에서 공간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힌다.

1.3. 연구의 배경 및 방법

우리는 공간 속에서, 공간과 더불어 삶을 살아간다. 부엌, 화장실, 침실과 같은 몇 개의 방들이 있는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아침이면 일터를 향해 거리로 나아간다. 여기서 언급된 부엌, 화장실, 침실뿐만 아니라 집, 거리, 일터가 모두 하나의 공간

이다. 공간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수 없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나름의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것은 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구성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의 공간이 나름의 고유한 공간으로 자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체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행위와 사고를 정의하고 고유한 경험들을 구성하는 경험의 매개물로 자리한다. 공간을 정의하고 그것의 성격을 특징짓는 데에는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와 그의 구체적인 공간경험이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 자체의 형식적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인식론적인 배경 속에서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구체적인 경험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의 이러한 경험을 연출해내는 공간조건들과 사회·문화적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떠한 힘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공간을 조직해 내는 사회관계와 권력, 그리고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와 그의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이며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설정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관련 문헌자료들에 대한 고찰과 비평적 서술이라는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관련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정희원, 건국대학교 디자인문화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2.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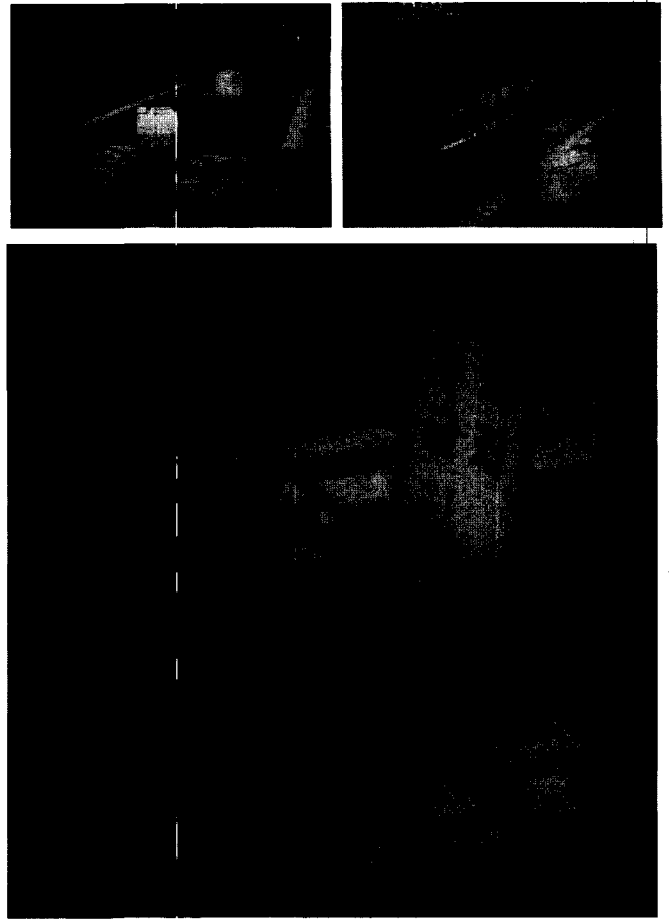
2.1. 공간인식과 공간경험

공간은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바탕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간혹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국경분쟁이나 어업협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임에 틀림없다. 자기 집 앞 길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주와 그 길가에 주차한 차주가 실랑이를 벌이는 풍경이라든지, 애초에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물통과 페타이어로 영역표시를 한 골목의 모습 또한 우리가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미시적 차원의 사건들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공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욕망하는 이해 방식이 극단적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흔히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기호를 통해 지각한다. '지도'는 공간을 그렇게 기호화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여행길에 들척이는 지도책에 자리한 공간, 위성항법장치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장착한 자동차의 모니터 속의 공간, 심지어 결혼식장을 알리는 청첩장의 안내지도 속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간을 지도라는 매개와 방식을 통해 지각한다. 공간에 대한 하나의 이해방식으로서 지도는 공간을 독특한 방식으로 재정의 한다. 그 방식이란 실제 공간의 굴곡진 형상들과 특이점이라는 장소성을 평평한 격자 속의 위치로 환원하는 것이다.

1569년 벨기에의 지리학자인 게라르두스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가 고안한 메르카토르식 세계지도는 이러한 이해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임에 틀림없다. 기능적 차원에서 그의 지도가 항해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면,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공간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각방식을 변화시켰다.

"중요한 것은 메르카토르식 세계지도가 우리의 '세계관'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세계'는 단일한 연속 평면으로 제시되며,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기하학적 격자 속에 종속된다. 지도상의 어떤 곳도-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생활세계조차-'세계'의 격자로부터 위치를 부여받는 '부분'에 불과하며, 좌표로 표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모든 장소는 좌표상의 점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장소로 간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점은 좌표계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상대화되어 버린다. 결국 이 '세계'에는, 모든 현실의 장소 즉 공간이 균등하고 균질적인 공간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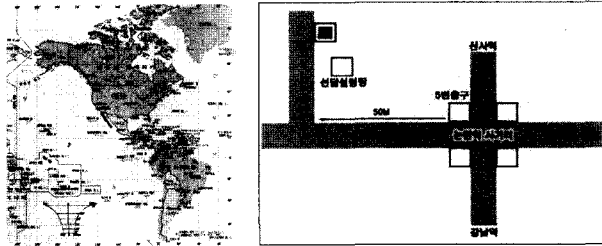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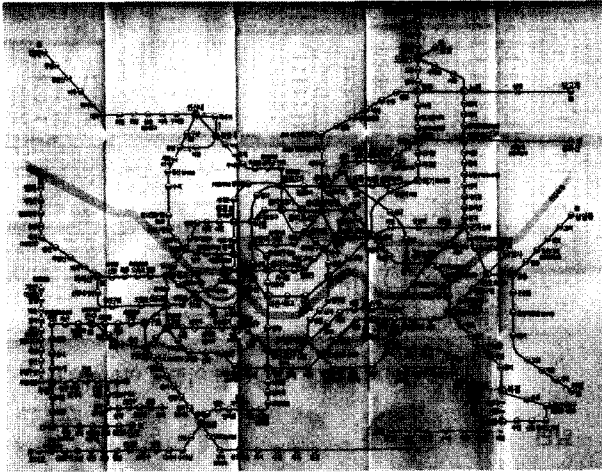
<그림 1> 물통과 페타이어로 영역표시를 한 모습들

이효덕은 동질적인 기하학적 격자망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지각함으로써 공간을 균질화하는 지도(특히 메르카토르식 지도)의 독특한 공간 인식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지각방식은 지극히 근대적인 것으로, 데카르트의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공간이해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그의 '추상적 공간' 개념은 어떠한 부분 공간도 전체 공간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단지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²⁾ '부분공간의 합을 전체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 '균질한 공간 개념', '장소성의 삭제'는 공간을 단일 평면에 배치하는 지도의 고유한 공간이해방식이다. 그것은 근대적인 공간이해방식이 구체화된 하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삶에서 한 공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부분 공간들의 합일까? 즉 일정한 크기의 칸들이 동일한 가치로 존재하는 수학적 좌표에서와 같이 개별 공간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가? 적어도 우리의 논의가 물리학이나 수학적 차원의 관심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물음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도의 공간 지각 방식은 살아있는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험 방식과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경험 밖에서 세계를 보는 방식의 일종인 것이다.

1)李孝德,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사, 2002, p.268

2)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도서출판 푸른숲, 1998,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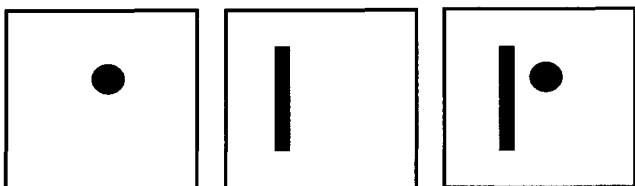
<그림 2> 다양한 형태의 지도

우리는 일상의 공간을 추상적이거나 균질함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만나고, 그 만남들 속에서 한 공간에 대한 태도와 관계 방식을 구체화한다. 우리가 공간을 접할 때, 그 공간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독립적으로 다가오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경험속의 연관된 무언가와 함께, 그것을 통해, 지각이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공간은 단순히 고정된 형상이나 기능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의 관계에서 우리 또한 가치중립적인 방식으로 그 공간을 접하지 않는다.

2.2. 공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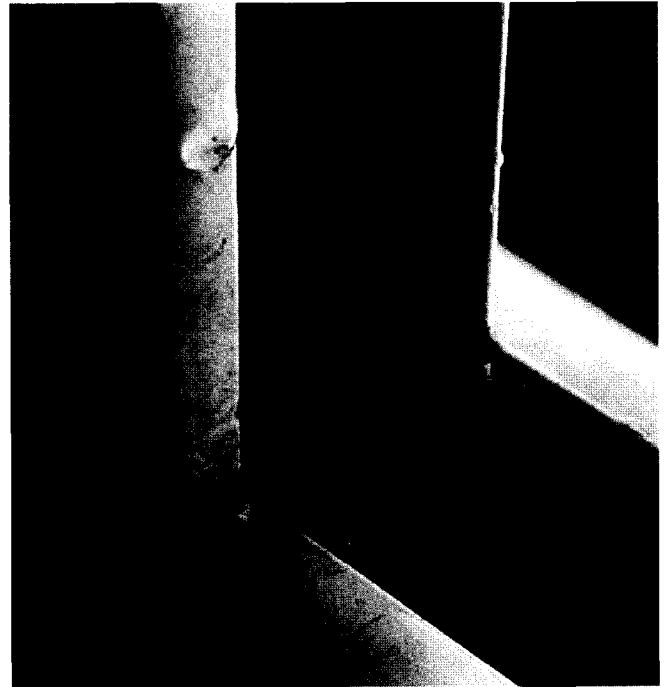
(1) 구성요소

흔히 우리는 공간을 '텅 빈 무엇'으로 쉽게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공간은 텅 빈 허공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은 무언가 채워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공간을 구성해내는 무언가는 하나의 얼룩일 수도 있고, 하늘로 솟아 오른 기둥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흔히 보는 벽일 수도 있다. 하나의 공간이 경험 가능한 공간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텅 빈 허공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리하는 공간에서 살아간다.



<그림 3> 구성 요소들의 차이가 만드는 서로 다른 공간

만일 우리가 공간을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장소'라고 정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간은 다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다양한 사물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공간이 창고가 되고, 힘차게 움직이는 축구선수들을 품고 있는 공간이 축구장이 되며, 높은 빌딩과 사람들을 품고 있는 장소가 도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림 4> 풀이 자리하는 문틈 공간³⁾

우리가 경험하는 각각의 공간은 그 공간을 규정하는 사물들이 자리한다.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자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오고가는 거리에는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가로수, 휴지통과 같은 사물들이 자리하며, 가정에는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이 자리한다. 놀이터라는 공간은 놀이기구들을 통해서 놀이터가 되고, 거리 공간은 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들에 의해 거리가 되며, 가정이라는 공간 역시 가전용품들과 가구들에 의해 가정이 된다. 때문에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자리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간은 그렇게 그 공간을 점유하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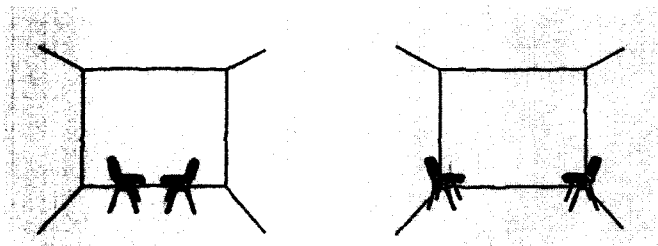
공간 구성요소의 차이가 서로 다른 공간을 만든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가정에서 TV의 존재를 통해 거실을 이야기하고, 침대의 존재를 통해 침실을 이야기하며, 냉장고의 존재를 통해 부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각행태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버스의 존재를 통해 한 공간이 도로임을 확인하고, 벤치의 존재를 통

3)풀에 의해서 문틈이라는 공간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그 공간이 무엇인지 구체적 언어로 명확하게 담아내기 어려울지라도 공간의 성격은 분명 변화하였다. 이것은 공간이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해 한 공간이 공원임을 확인하며, 나란히 정리된 책상들을 통해 한 공간이 교실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 공간이 탄생과 더불어 선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우리는 내용물들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성격이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를 현실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수재민의 피난처가 되어버린 초등학교 교실이라든지, 주차장이 되어버린 운동장이 바로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교실에 책상과 초등학교의 책상방이 아닌, 위문품으로 보내진 라면상자와 이불, 그리고 텔레비전의 존재가 그곳을 교실이 아닌 피난처로 정의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이 아닌 자동차가 자리함으로써 이제껏 운동장으로 자리하던 공간은 주차장이 되는 것이다.

(2)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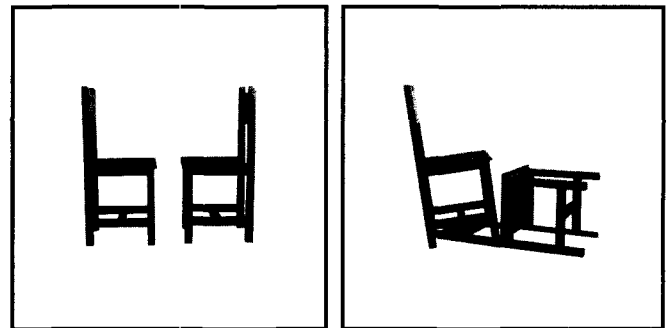
<그림 5> 두개의 마주보는 의자가 있는 공간⁴⁾

“다음과 같은 두개의 그림을 서로 비교해 보자. 두 그림 모두 같은 크기의 방에 같은 크기의 의자를 놓은 것이다. 여기서 의자나 방 등의 물리적인 대상은 동일하지만 두 종류의 세팅(setting)은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한 쪽은 그곳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대화가 가능한 세팅이지만 다른 쪽은 역이나 대합실처럼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 없이 앉아있을 수 있는 세팅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요소의 구성은 동일하더라도 예를 들어 의자를 놓는 위치에 따라 그 장소에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유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⁵⁾

동일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나시테 가즈히코의 설명은 그러한 내용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공간은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한 요소들이 어떠한 배치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이 되고 있다. 때문에 배치는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고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배치를 통해 한 공간은 고유의 형상을 가진다. 그 형상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움직임은 또 다른 대상으로 유도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한다.

4)그림출처: 일본건축학회, 박영기의 역,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공간학, 기문당, 2000, p.14
5)나시테 가즈히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읽는다”, 일본건축학회, 박영기의 역,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공간학, 기문당, 2000, p.13

배치는 이웃하는 다른 구성요소와 접속하는 방식이자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단위다. 또한 배치는 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양태이자 존재방식이다. 구성요소들이 자리하는 위치와 요소들 간의 거리, 그리고 그것들이 자리하고 관계하는 양태 등에 의해 이야기 될 수 있는 배치는 한 공간의 특징적인 형상을 구성해 낸다. 나시테 가즈히코가 사례는 특히 구성요소들이 자리하는 위치와 요소들 간의 거리에 의해 달라지는 공간을 드러내고 있다. 가까이 마주보도록 배열된 의자가 있는 공간은 ‘대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서로 마주보는 벽에 등을 대고 배열된 두 의자가 있는 공간은 ‘대기’, 혹은 ‘기다림’을 연상시킨다. 이로 인해 둘은 서로 다른 공간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의 차이는 공간요소들이 자리하는 위치와 거리의 변화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림 6> 의자들의 존재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

<그림 6>의 의자의 예는 구성 요소들이 자리하는 양태와 관계방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성격변화를 드러낸다. 첫 번째 배치가 마주보는 시선의 이미지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성과 대화를 연상하게 한다면, 두 번째 배치는 무질서와 폭력, 계급성 등의 향기를 발산한다.⁶⁾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치가 한 공간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능주의적 관점이 제기하는 공간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의심케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배치에 대한 이진경의 다음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계가 실험실 및 과학자와 접속(connection)되어 계열화되면 그것은 운동이나 반응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적인 기계가 되지만, 공장 및 시간관리인과 계열화되면 그것은 출근시간과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사회적인 기계가 된다. 날아가는 축구공은 그 앞뒤에 어떤 사람들이 접속되는가에 따라 ‘패스’가 되기도 하고, ‘패스미스’가 되기도 하며, ‘슛’이 되기도 하고 ‘아웃’이 되기도 한다.

방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의 공간도 침대와 접속되면 침실이 되고, 책상 및 책들과 접속되면 서재가 되고, 복수의 책상들과 접속되면 사무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열화가 어떤

6)오창섭,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메타디자인을 찾아서, 홍디자인, 2003, pp.86-89

조건에 의해 반복될 때, 그 반복적인 계열화를 ‘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⁷⁾

하나의 방이 침실과 서재와 사무실이 될 수 있다는 이진경의 설명은 본 논문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사례라기보다는 앞서 본 ‘내용물, 즉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사례에 가깝다. 그러나 동일한 시계와 공이 접촉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를 파생한다는 사실은 분명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의 차이와 배치의 힘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공간담론에서 배치가 중요한 것은 위의 예에서처럼 배치라는 조작을 통해 일상의 한 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적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의 잠금장치를 다르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한 공간은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문의 잠금장치가 자리하는 방향의 변화만으로 한 공간은 ‘나만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잠금하기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2002년에 군산에서 있었던 화재참사는 하나의 ‘일상적 공간’이 잠금장치의 배치에 따라 ‘감시와 감금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업소 현판문에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특수한 잠금장치가 부착되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감시하는 등 종업원들이 사실상 ‘준감금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⁸⁾라는 화재사건에 대한 한 일간지의 사설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잠금장치의 배치는 그 공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계급적 관계를 증언한다. 잠금장치의 다른 배치는 단순히 물리적, 혹은 기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는 배치를 통해 구성된 공간과 관계하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유도함으로써 사회관계와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화재참사가 있었던 군산의 그 공간은 일반적인 주거공간과 달리, 잠그는 자가 공간 밖에 자리한다. 일반적 배치와 다른 이러한 공간적 배치는 공간 내부에 있는 사람이 감옥이나 정신병원에서처럼 통제받고 있는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와 외부에 자리하는 주체들의 계급적 관계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3. 공간, 권력, 실천의 변증법

3.1. 공간과 권력

일반적으로 공간은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배치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공간을 미학적, 혹은 기능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공간은 ‘구성요소’와 그것들의 ‘배치’뿐만 아니

라 ‘경험주체’와 ‘경험’, 그리고 공간에 작용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은 미학적, 혹은 기능적 문제라기보다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재설정된다.

사회에 자리하며 유통되는 권력은 이데올로기라는 매개를 통해 삶의 경험주체들에게 작용한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성을 숨기고⁹⁾,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장치와 제도들을 통해서 작동한다.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학교, 교회, 가족 등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es)라고 불렀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이데올로기가 타고 흐르는 일종의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회, 가족, 공장과 같은 제도 등을 통과하면서 현대를 사는 개인은 이데올로기가 호명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데올로기는 제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시각을 자극하는 이미지, 그리고 기능하는 사물들, 더 나아가 공간이라는 구성된 매개를 통해서도 작용한다. 공간에 자리하는 권력은 이데올로기라는 방식을 통해 공간에 자리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해내는 것이다.

“선생과 학생들 사이의 위계질서적인 관계들은 강의실의 배치에 각인되는데, 단을 높이 올린 강단 앞에 층층이 줄지어진 강의자가 있는 좌석 배열은 정보의 흐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수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 내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은 비록 무의식적이라고는 해도 개인의 교과과정의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내려져 있다. 이 결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뿐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도 한계를 설정하는데 일조한다. 여기서 건축물은 문자 그대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통념들을 구체적인 항목들로 재생산한다.…… 우리의 사고의 틀들은 실제 벽돌이나 몰타르로 번역된다.”¹⁰⁾

딕 헵디지(Dick Hebdige)는 강의실의 공간적 배치에 의해 선생과 학생 사이의 위계적 질서가 고착화되는 지점을 발견하고 있다. 정면을 보도록 배열된 책상과 의자들은 그 공간에 자리한 학생들에게 그 공간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해서는 안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 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신적 활동이 어떤 것이며, 피해야 할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공간적 배치를 통해 이야기한다. 그 배

9)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성을 숨김으로써 비로소 이데올로기가 된다. 스스로 이데올로기임을 선언하면서, 즉 이데올로기성을 드러내면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는 없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은 항상 보편적인 형식을 취합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것일수록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지요.”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p.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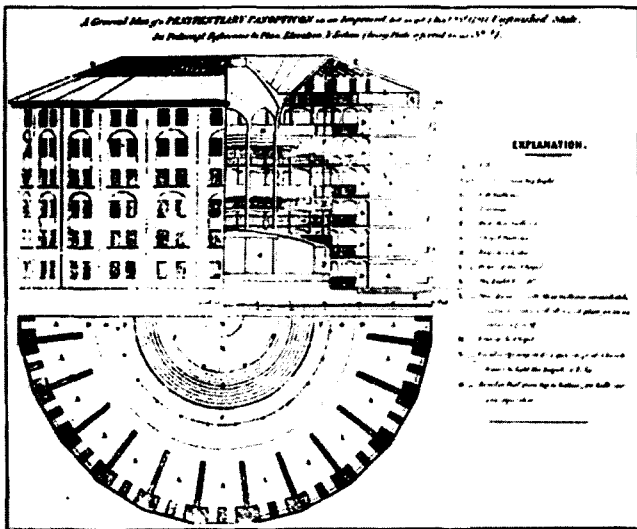
10) 딕 헵디지, 이동연 역, 하위문화, 현실문화연구소, 1998, p.31

7)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사, 2002, p.52

8) “郡山참사 경찰 소방당국 뛰했다”, 동아일보, 2002년 2월2일자 사설

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선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실이라는 공간은 그 배치를 통해 이야기 한다. 공간적 배치의 지속적인 속삭임 속에서 그곳에 자리하는 주체는 공간의 호명에 답하고, 호명하는 방식에 길들여진다.

권력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간에 작용한다.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그것들의 배치, 즉 자리하는 방식, 위치, 거리 등과 같은 우리가 공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과정에서, 혹은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적합한 형상이라고 이해하고 소통되는 내용들은 사실 이 사회에 자리하는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심어진 하나의 허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판옵티콘(panopticon)이라고 불리는 일방감시체계에 대한 푸코(Michel Foucault)의 설명이다.



<그림 7> 판옵티콘 구조¹¹⁾

판옵티콘은 벤담(Bentham)이 처음 구상한 공간의 형상이다. 푸코는 바로 이 판옵티콘의 공간적 배치가 공간과 권력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배치’는 그 자체에 이미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때문에 ‘배치’를 통해 권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간을 통해 권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간은 형태와 기능의 문제를 넘어 권력의 문제가 된다. 다음은 판옵티콘의 구조에 대한 푸코의 설명이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여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의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11)그림출처: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7, p.296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을 구석구석 스며들 어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 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감금된 사람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러한 공간적 배치는 독방에 감금된 이들을 통제한다. 판옵티콘에서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의 배치만으로 가능한 것이 된다. 판옵티콘의 탑 속에서는 독방들에 자리하는 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독방에 자리하는 이들은 탑 속에 자리한 이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공간적 배치는 자신들이 간수의 시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냄으로써 독방에 자리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감시하게 한다. 이렇게 구성된 의식을 통해 간수가 실제로는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간수의 감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검열 방식과 그들의 행위들은 공간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푸코가 언급한 것처럼 권력은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그리고 장치 속에 존재’¹³⁾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바로 그 관계와 장치가 물질이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여기서 권력은 공간을 통해서 경험주체들에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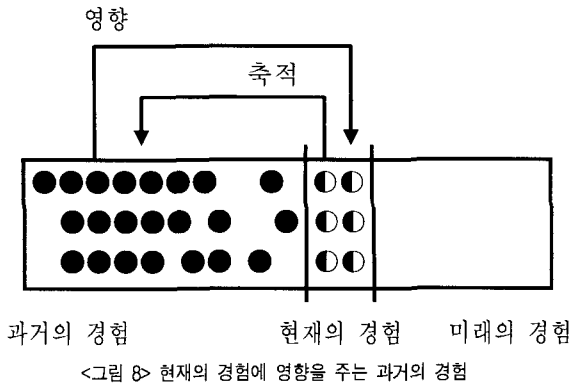
3.2. 공간경험의 두 차원

일반적으로 경험주체인 인간은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환경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환경과의 만남은 사고와 행위를 동반한다. 사고와 행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체는 경험이라는 것을 쌓아간다.¹⁴⁾ 여기서 쌓인 경험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경험’이 된다. 과거의 경험은 기억의 형태로 행위주체의 마음에 자리하면서 현실의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현재의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을 접할 때, 우리는 기억이라는 거울을 통해 그 대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겨울철 얼어붙은 길가에서 넘어져본 이는 그것을 의식의 차원에서 기억할 것이고, 유사한 상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접한다면, 그 기억을 통해 반응할 것이다.

12)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7, p.295

13)미셸 푸코, 앞의 책, p.298

14)이-푸 투안은 경험을 “어떤 사람이 겪어오거나 견뎌온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다. ... 경험은 사람이 겪은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험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즉, 경험은 주어진 것에 따라 행동하고 주어진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pp.24-25



그렇다면 일상의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그 경험의 기억은 어디에 자리하는가? 일반적인 통념은 기억을 의식의 차원에 자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다음의 글은 기억의 소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적인 타자수의 손가락은 기계 위를 날아다닌다. 우리는 손가락의 흐릿한 움직임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속도와 정확성을 감안할 때, 타자수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마음속에 분명히 그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자판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즉, 그는 손가락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글자의 위치를 생각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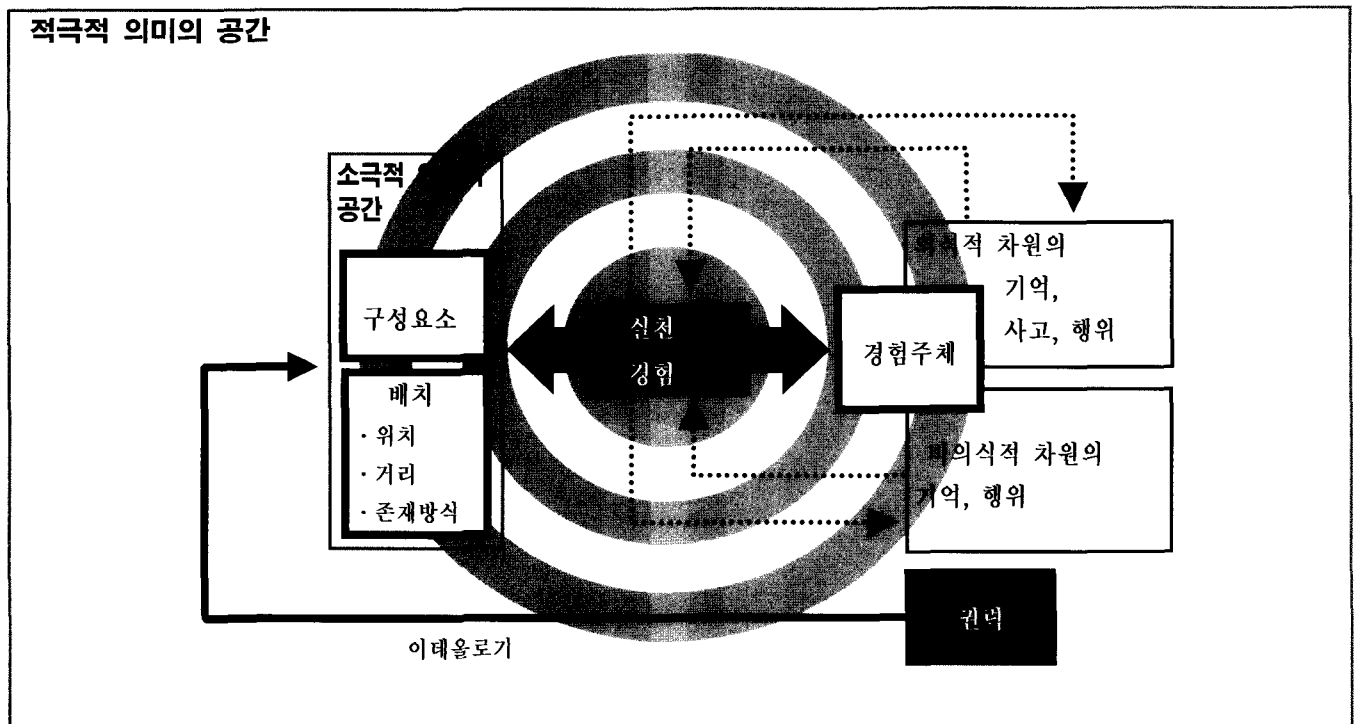
기억은 의식적인 차원에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도 자리한다. 위의 예에서 타자에

익숙한 타자수가 자판에서 글자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하는 것은 글자의 위치를 의식적인 차원이 아닌 손가락이라는 몸의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몸이,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기억을 하는 것이다. 기억의 주체로서 ‘몸’과 ‘몸의 움직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은 일상에서 쉽게 발견된다.

가령 야구의 예를 들어보자. 야구선수들 중 대부분의 투수는 ‘직구’와 ‘커브’를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의식적 차원에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실제로 공을 잘 던지는 것과 항상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손과 몸, 그리고 그것들의 움직임 자체에 공 던지기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미묘한 부분까지 기억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그렇게 기억될 때만이 투수는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유사하다. 우리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공간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억해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과 그 몸의 움직임, 그리고 의식이라는 영역 밖에 자리하는 다양한 감정들도 공간을 경험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경험들을 기억한다. 이-푸 투안은 윌리엄스(Griffith Williams)의 고속도로 최면(Highway Hypnosis)를 예로 들면서 비의식적 차원의 공간 기억을 설명하고 있다.

“장거리 통근 및 운전과 같은 미국 사회의 몇몇 부분에서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인식 없이 공간적 기술이나 지리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



<그림 9> 공간과 관련 요소들의 상관관계

15)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p.116

다. 운전자는 익숙한 도로를 달릴 때에는 '멍한' 상태에 있다. 그는 더 이상 운전 전에 정신을 집중시키지 않는다.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의 육체는 (넓은 커브길이 나오면 운전대로 조정하고 긴 오르막길이 나타나면 가스페달을 밟듯이)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동차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¹⁶⁾

운전 중에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다 명백히 보여준다. 한 공간은 우리가 의식하는 차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을 통해서도 기억되고 그 기억을 통해 경험 주체는 비의식적 차원에서 공간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간경험은 '의식적 차원'과 '비의식적 차원'이라는 바로 이 두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방식인 것이다. 그 두 가지 층위는 일상에서 서로 대립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공간경험을 만들어 간다.

3.3. 공간경험과 실천

하나의 공간은 구체적인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배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구성요소들과 그것의 배치는 한 공간의 크기와 형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계하는 이들의 몸짓과 의식을 구성해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공간을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배치만을 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예와 같은 동일한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느낌이나 사용행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활동적인 아이에게 계단은 두 층 사이의 연결, 즉 <오르내리는 것의 초대>를 의미한다. 노인에게 계단은 두 층 사이의 장벽, 즉 <제자리에 있으라는 경고>를 의미한다."¹⁷⁾

여기서 계단이라는 하나의 공간은 경험주체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계단은 동일한 구성요소와 동일한 공간적 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하는 서로 다른 경험주체들에게 다른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한 공간에 자리하며,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경험주체가 공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맑스는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는 노예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 명제는 "인간이란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의 자유인이 백인의 손에 잡혀 미국으로 옮겨지는 순간, 좋은 삶든 노예가 되듯이" 말이다.¹⁸⁾

16)이-푸 투안, 앞의 책, pp.118-119

17)이-푸 투안, 앞의 책, p.91

맑스의 위 명제는 주체의 사고와 경험을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조건이 규정한다는 유물론적인 진술이다. 사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일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한다. 이 명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지점이며, 그것의 부당함을 이 진술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맑스의 이 명제는 그러한 유물론적 이해 방식을 흔들고 경험주체의 창조적 실천을 긍정하는 진술로 재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간, 즉 주체를 정의방식에 이 명제를 적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사물'과 '공간'의 영역으로 적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생산과 더불어 자신이 무엇인지를 확인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고는 생산 과정을 통해 사물에 부여된 기능이라든지 존재방식이 보편적이고 옳은 것이며, 때문에 불변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확장된다. 이 사고의 공간에서 TV는 TV이며, 부엌은 부엌이다. 그것은 그렇게 정태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은 삶의 공간에서 사용자의 사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다.¹⁹⁾ 이 경우 사용이 바로 하나의 '실천'인 것이다.

실천은 경험주체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실천은 환경과 관계하는 경험주체의 능동적인 활동이다. 실천이라는 개념은 인식의 대상을 고정된 객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 즉, 서로 다른 실천에 따라 동일한 대상은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문화를 다룬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기호의 제국>에는 이러한 내용과 관계있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어떤 선사가 '부채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잘 내리는 제자에게 상을 주었는데, 그가 상을 준 이는 부채 고유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실천(부채질)으로 답한 제자가 아니었다. 상을 받은 이는 부채를 접어서 목을 굽기도 하고, 부채를 퍼서 과자를 그 위에 얹기도 하는 제자였다. 그는 일련의 연속적인 일탈적 창조행위를 통해 부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이 예는 하나의 사물이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공간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계단은 늘 계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맥락 속에서, 그리고 특정한 경험주체의 실천에 의해서 계단은 '오르내리는 것의 초대'를 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제자리에 있으라는 경고'를 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공간을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움직임

18)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근대철학의 경계들, 그린비, 2003, pp.193-195

19)오창섭, 앞의 책, p.16

20)롤랑 바르트, 김주환·한은경 역, 기호의 제국, 민음사, 1997, p.100

을 부정하고, '경험주체와 관계방식에 의해 정의되는 가변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공간과의 만남에서 공간을 경험하는 우리의 구체적 '실천'은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삶의 맥락 속에 공간을 위치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활동이다. 만일 실천을 배제하고 권력에 의한 공간의 형성과 작용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 공간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 경우 공간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가능성이 프로그램된 물질적 대상이 되고,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그것을 확인하는 활동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다음 글은 일상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공간적 질서가 가능성과 금지규정 전체를 조직하는 게 사실이라면 걷는 자는 이러한 가능성들 가운데 일부를 실현한다. 그렇게 하여 걷는 자는 가능성들을 나타내게 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게도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가능성들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창출하기도 한다. 걷기에서의 가로지르기, 이리저리 표류하기, 혹은 즉흥적인 행위 등이 공간적 요소들을 특권화하고 변형하거나 포기하기 때문이다. ... 걷는 자는 각 공간적 기표를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킨다.”²¹⁾

세르토가 이야기하는 '걷는 자'는 일상의 경험주체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걷기'라는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통해 도시계획자나 건축가가 부여한 공간적 용법을 가로지른다. 디자인된 공간적 용법은 제한적 가능성들로 실천을 구체화하려하지만 일상의 공간 실천은 그 가능성들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제한된 가능성들을 넘어서는 지점은 공간의 창조적 의미들이 일상의 공간 사용을 통해 생성되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그리고 그러한 공간 구성을 통해 공간을 사용하는 경험주체들을 고유한 방식으로 혼용하려는 권력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요 비틀기이다.

4. 결론

공간을 등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세계를 등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도식인 지도는 근대성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정확히 드러낸다. 그 이해방식이란 등질적인 비어있는 무엇으로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경험적 차원에서 공간은 무언가 채워짐으로 경험

되고, 따라서 서로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간은 물질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배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자리하는가에 따라 하나의 공간은 다른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들만으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은 사회관계와 역사가 반영된 산물이며, 생활주체에 의해 영향 받는 존재인 것이다. 생활주체의 공간경험은 의식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의식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두 차원의 경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의 공간경험을 만들어 낸다.

공간은 중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매개로 자리한다. 일상의 공간 사용자들은 그러한 공간과 공간의 힘을 실천이라는 방식을 통해 경험한다. 실천은 공간이 사용자에게 유도하는 관계방식을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비틀고 새로운 관계방식을 만들어냄으로서 일종의 창조적 공간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간과 공간경험의 관계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물질적인 구성요소들의 배치와 사회-문화적 힘들로 구성된 공간이 그 속에서의 특정한 공간경험을 구성해 내고, 삶에서의 다양한 공간경험 또한 경험하는 공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성격 짓고 규정하는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특정한 미학적 기준이나 기능적 믿음에 바탕을 둔 조형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오창섭,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메타디자인을 찾아서, 홍디자인, 2003.
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사, 2002.
3.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도서출판 푸른숲, 1998.
4.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근대철학의 경계들, 그린비, 2003.
5.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6. 나카노 하지무, 공간과 인간, 도서출판 국제, 1999.
7. 李孝德,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사, 2002.
8.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7.
10. 딕 헵타지, 이동연 역, 하위문화, 현실문화연구소, 1998.
11. 나시데 가르히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읽는다”, 일본건축학회, 박영기 외 역,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공간학, 기문당, 2000.
12. 물랑 바르트, 김주환·한은경 역, 기호의 제국, 민음사, 1997.
13. 미셸 드 세르토, “도시 속에서 걷기”, 박명진 외 7인 역,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14. 이따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15. “鄞山참사 경찰 소망당국 뒤흔나”, 동아일보, 2002년 2월2일자 사설.

<접수 : 2004. 2. 10>

21)미셸 드 세르토, “도시 속에서 걷기”, 박명진 외 7인 역,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p.165